contents





03 prologue
섬과 섬을 이어 백리의 길을 내다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07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1구간
땀 흘린 만큼만 허락하는 바다 풍경 **미륵도달아길**

15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2구간
아름다운 풍광 속 영웅의 흔적을 따라 **한산도역사길**

23 한려해상백리길탐방_3구간
산호빛의 섬 미인의 품속으로 걷고 걸어 **비진도산호길**

31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4구간
도란도란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고운 길 **연대도지겟길**

39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5구간
햇살과 어심漁心을 품은 섬으로의 산책 **매물도해품길**

47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6구간
작기에 더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백미 **소매물도등대길**

55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추천코스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탐방추천코스**

57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통영 먹거리
배멀미도 막지 못하는 **통영 최강맛집 6**

59 한려해상 바다백리길탐방_통영 볼거리
통영, 놓치면 안될 **14가지**

bada bangnigil






"아름답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통영 앞바다 6개 도서인
미륵도(14.7km), 한산도(12km), 비진도(4.8km),
연대도(2.3km), 매물도(5.2km), 소매물도(3.1km)에 조성된
총 42.1km의 숨은 비경을 소개합니다."

“섬과 섬을 이어 백리의 길을 내다”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거제 지심도에서 여수 오동도에 이르는 푸른 바다에는 100개의 초록빛깔 보석들이 하늘에서 뿌려진 듯 점점이 떠 있다. 세계에서도 쉬 찾아보기 힘든 섬과 바다, 육지가 어우러진, 마치 바다 위로 산맥이 이어진 듯한 장관이 시작되는 곳. 그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겠냐만, 그 중에서도 통영이 거느린 작고 아름다운 섬 6곳을 잇고 이어 백리의 길을 냈다. 우리 땅 곳곳에 유행처럼 생겨 난 길들 가운데서도 발군의 매력을 품은, 이름하여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이 그곳이다.

미륵도, 한산도, 연대도, 비진도, 매물도, 소매물도 등 귀에도 익숙하고 마음에 한 번쯤 품어 봤을 법한 섬들에서 그 길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 섬을 한 바퀴 일주하거나 가로질러 섬의 가장 아름다운 구석구석을 만나는 시간이 펼쳐지는데, 길마다 의미를 담고 섬의 매력을 실어 멋진 이름까지 붙여졌다. 달아길(미륵도), 역사길(한산도), 지겟길(연대도), 산호길(비진도), 해품길(매물도), 등대길(소매물도) 등 섬이 안고 있는 사연들을 하나하나 길에 비추어 낸 것이다.

여느 걷기 길들과 비할 수 없는 이들만의 매력은 수없이 많다. 대부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된다는 독특한 경험이 있고, 섬의 최고봉까지 오르는 수고를 거치면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만의 잊을 수 없는 풍경이 보상으로 주어지며, 섬 특유의 아름다운 식생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길 저편으로 간간이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의 풍경에 취한 듯 거닐게 된다는 점 등이다. 물론 섬 주민들의 검소하고 살가운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백리의 길을 걷다 보면 나라를 지킨 거점이 되었던 사연과, 투명한 물빛이 마블링 된 바다의 장관과, 봄이면 동백이 흐트러지는 눈부심과, 외롭고 애틋하게 홀로 선 새하얀 등대와, 섬이 굽이치는 바다의 장관과 두루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바다와 길을 오가는 이들의 수고를 달래 줄, 입 안 가득 신선함을 채우는 풍성한 먹을거리도 행복한 덤으로 안겨 준다.


Keymap
미륵도관광특구
통영시
거제시
남해
한산도
연대도
비진도
매물도
소매물도
산양읍
미륵도
한려해상국립공원
한산면
내부지도
오비도
곤리도
쑥섬
대장도
소장도
싸리섬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오곡도
춘복도
방아도
항도
화도
상죽도
하죽도
미생도
비산도
좌도
송도
대혈도
소혈도
유자도
생이섬
추봉도
장사도
대덕도
소덕도
어유도
매섬
N
S

땀 흘린 만큼만 허락하는 바다 풍경

미륵도 달아길

통영대교를 건너 육지처럼 편히 드나들 수 있는 미륵도에서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이 시작된다. 산줄기를 따라 미륵도를 비스듬히 관통하는 총 길이 14.7km, 소요시간 5시간의 달아길은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여섯 구간 중 가장 긴 코스이기도 하다.

바다백리길이 있는 섬들 중 가장 큰 미륵도는 볼거리도 많고 도로와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 편하게 둘러보기 좋다. 하지만 걷기 길을 걸을 때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올라 도착한 미륵산 정상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여유롭게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괜한 고생 그만두고 편히 즐기며 내려가 볼까 마음이 흔들린다. 미륵도의 크기 때문인지 다른 구간에 비해 바다 조망도 야박한 편이다. 특히 희망봉에서 달아전망대로 이어지는 산길에서는 바다 전망 한 번 보려면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꼬박 30분 안팎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다. 무슨 걷기 길이 이리 가파르냐고 투덜거리다가도, 탁 트인 바다와 수묵화처럼 우아하게 어우러진 섬들이 내려다보이는 너른 바위가 나오면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의 원망이 반쯤은 누그러진다. 그렇게 딱 멈추고 싶을 때쯤 한 번씩 나타나는 전망 좋은 명당 자리를 네 번 지나며 생각했다. 이 걷기 길은 '밀당'의 명수라고. 사실 바다 풍경이야 어느 봉우리에서 보나 크게 달라질 게 없으니, 걷는 내내 보였다면 숨이 차오를 즈음 시들해지고 말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토록 감질나게 그 모습을 보여준 덕에 다음 봉우리를 향해 걷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다.







코스안내

달아길은 야소마을에서 산양마을까지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산길이다. 대단히 험하고 큰 산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등산'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길이다. 험한 정도는 접어 두고라도 5시간이나 걸어야 하니, 노약자와 함께라면 좀더 쉬운 코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한 번에 5시간을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미래사에서 야소마을까지, 산양마을에서 달아전망대까지 나눠서 걷는 것도 방법이다.

14.7km / 5시간

미래사 ▶ 미륵산 ▶ 미륵치 ▶ 산양읍사무소 ▶ 희망봉 ▶ 중화전망대 ▶ 연명전망대 ▶ 연화전망대 ▶ 달아전망대









주요 지점 01
고즈넉하고 상쾌한 출발, 미래사

이 길을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내라고 정해진 바는 없다. 하지만 미래사를 출발점으로 잡는다면 일단은 기분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미륵산 중턱에 자리한 미래사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근차근 중건된 조계종 말사다.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우리가 '산사'에 바라는 고즈넉한 운치에서는 천년 고찰 부럽지 않다. 진입로에는 울창한 편백나무숲이 있어, 그 상쾌한 향기가 '이제 곧 자잘한 근심은 내려 놓게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듯하다. 재미있는 특징은 유독 돌이 많다는 것. 사천왕문四天王門 격인 삼회도인문三會度人門에서부터 대웅전까지 올망졸망한 돌이 깔린 길이 놓여 있고, 그 길 끝에는 크고 작은 돌무더기 위에 익살스런 동자승들이 올려져 있다.

주요 지점 02
두 눈 가득 밀려드는 한려수도, 미륵산 정상

미래사에서 30분쯤 산길을 올라가면 저 멀리 케이블카가 보인다. 널찍한 나무 계단과 데크가 나오면, 이곳에서부터 미륵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온통 전망대들로 이어져 있다. 미륵도를 둘러싼 남해바다의 환상적인 전망을 빙 둘러가며 원 없이 감상할 수 있는것. 올라오는 길이 힘에 부쳤다면 케이블카 승강장에 있는 전망 좋은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 보는 것도 좋겠다. 그 모든 전망대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미륵산 정상에 오르면, 해발 461m라는 거리가 무색하게 푸른 바다의 풍경이 두 눈 가득 밀려든다.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어느 고급 레스토랑도 따라올 수 없는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주요 지점 03
길을 걷다 만난, 어느 평화로운 마을

미륵산 정상에서 미륵치까지 내려오면 길게 이어지는 돌담길이 시작된다. 그 길이 끝날 즈음 불쑥 작은 대숲이 나오고, 곧 어느 한적한 농촌마을로 들어선다. 사실 이곳은 우연히 마주친 마을이 아닌, 달아길 지도에 어엿이 이름이 올라 있는 야소마을이다. 하지만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맛집도 없고 볼거리도 없는, 그냥 마을이다. 흐드러진 동백만이 객을 반겨 주는 이 마을에 들어서면, 우연히 마주친 어느 농촌마을의 호젓한 골목을 걷듯 느릿느릿 조용히 지나칠 일이다. 그러면 어느 집주인이 전복껍데기 가리비껍데기 솔방울 들로 꾸며 놓은 아기자기한 담벼락, 매서운 기세로 마당을 활보하는 닭들, 천진하게 골목을 누비는 강아지가 있는 이 평화로운 마을의 정다운 풍경이 뜻밖에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주요 지점 04
너의 땀을 보상하노라, 중화~연명전망대

산양읍사무소 맞은편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등산로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애써 올라간 길을 다시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며 2시간 남짓 산길을 걷다 보면 '어차피 내려갈 산을 왜 힘들게 오르고 있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등산로 곳곳에서 만나는 솔숲 향, 야생화, 대숲의 바람소리와 더불어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꼽을 만한 것이 바로 희망봉 정상 근처에서 망산 정상까지 띄엄띄엄 나타나는 중화~연명전망대다. 바위에 올라앉아 바람에 땀을 식히며 크고 작은 섬들이 떠 있는 미륵도 서해안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고요해진다. 연화전망대에서는 달아전망대와 한려해상국립공원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주요 지점 05
달아전망대

미래사에서 걷기 시작했다면, 망산을 내려와 도착한 길 끝에서 달아공원 입구를 만나게 된다.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커피숍, 매점,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어 잠시 쉬어 가기 좋다. 이곳에서 잘 정비된 길을 따라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시원하게 시야가 트인 달아전망대가 나온다. 미륵도 끝자락에서도 바다를 향해 불쑥 머리를 내민 듯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한려해상의 절경이 한층 가까이 느껴진다. 서쪽 바다를 향해 있어 특히 해넘이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달아전망대에서 해넘이까지 시간이 남으면, 달아선착장을 사이에 두고 바다를 향해 나란히 뻗어 있는 곳에 자리한 통영수산과학관에 잠시 들러 보는 것도 좋겠다. 바다 생태와 수산업 관련 전시 내용이 충실하고, 체험시설도 잘 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라면 한번쯤 둘러볼 만하다.

●주변 볼거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운행시간** 하절기(4~8월) 09:30~19:00/동절기(10~2월)~17:00/춘추계(3 · 9월)~18:00, 탑승 완료 시간은 운행 마감 시간 1시간 전
매월 2 · 4주차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장
✚**이용요금** 성인 기준 왕복 9,000원/ 편도 5,500원
✚**문의** 055-649-3804~5 www.ttdc.kr

박경리기념관

✚**가는 길** 자가용 이용 시 내비게이션에 '양지농장' 입력, 양지농장 입구에서 300m 거리로, 안내표지판이 있다. 걷기 도중 들른다면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산양읍사무소 반대방향으로 길을 잡아 10분 정도. 대중교통은 532, 534, 535, 537번 버스 이용 '박경리기념관' 하차.
✚**관람시간** 09:00~18:00(월요일, 법정공휴일 다음날 휴관)
✚**입장료** 무료 ✚**문의** 055-650-2541~3, pkn.tongyeong.go.kry





information

✚ **달아탐방지원센터** 055-649-9201(달아공원 입구에 있으며, 개방시간은 09:00~18:00)

✚ **교통편** 미래사 입구에서 출발할 경우 자동차 이용 시 내비게이션에 '미래사' 혹은 '산양읍 미륵산길 192' 입력, 대중교통은 103, 105번 버스가 미래가 입구까지 운행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미래가 입구까지 걸어가는 길은 가파르고 인도도 따로 없어 권하고 싶지 않다. 통영시내에서 미래사까지 택시비는 1만 ~1만 5,000원 정도. 통영시내에서 미래사까지 택시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좋을듯하다. 달아공원 입구에서 출발할 경우 교통편은 '달아전망대' 소개 참고. 둘 중 한 곳에 주차해 두고 걷기를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출발지점으로 돌아가려면 2만 5,000원 정도가 나온다.
*콜택시 055-645-0000/ 055-643-1400

아름다운 풍광 속 영웅의 흔적을 따라

한산도 역사길

통영여객터미널에서 배로 20여 분. 그러니까 통영의 턱 밑에 있다 해도 좋을 만큼 가까운 곳에 한산도가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본영인 삼도수군통제사 통제영이 설치되었던 조선 수군의 근거지이자, 최대 전승지인 한산대첩의 현장이며, 장군의 유명한 시조 '한산도가'가 지어진 곳이다. 섬이 안고 있는 사연이 그러하다 보니 이 섬을 종주하는 바다백리길의 이름은 '역사길'. 육지를 막아 나라를 지키는 보루였던 이 섬의 오랜 가치를 길 곳곳에서 발견하라는 의미이다. 제승당에서 배를 내려 덮을개를 지나고 섬의 최고봉 망산(293m)을 넘어 진두에 이르는 12km의 제법 긴 역사길은 크게 망산 이전과 망산 이후로 나뉠 수 있다. 망산에 이르기까지 너울을 넘나들 듯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꾸준히 정상으로 향하다 망산 정상에서 제승당 선착장 건너 마을로 찬찬히 내려 이르는 식이다. 길 내내 워낙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길을 가는 터에 사위가 바다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 만만한 섬 걷기 길이라 보기에는 조금 수고가 필요하며, 너무 바삐 걷지 않으면 4시간 30분가량 걸린다. 섬의 최고봉을 넘나드는 길이지만 망산에 올라 예의 다도해를 내려다 볼 때의 짜릿함은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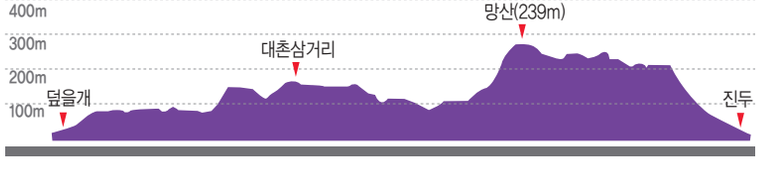






12km / 4시간

선착장 탐방지원센터 ▶ 덮을개 ▶ 통예인거리 ▶ 대촌삼거리 ▶
망산교 ▶ 정상 ▶ 사각정 ▶ 진두마을 · 야소마을



코스안내

한산도 역사길의 난이도는 대체로 무난한 편이지만 대촌삼거리를 지나 망산으로 향하는 동안은 약간의 오르막을 감수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나무로 계단을 짠 구간도 자주 지나는데, 그래도 등산화는 필수. 코스 내내 솔숲과 때죽 군락, 그리고 편백과 개서어나무, 육박나무, 졸참나무 등 풍성한 산림을 통과하게 되니 절로 삼림욕을 즐기는 길이기도 하다. 한산도는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따로 한산탐방지원센터(055-649-9201)를 두고있어 코스 정보 등을 확인하기 좋다.



●주요 지점 01
푸른 바다만큼이나 푸른 숲으로, 덮을개와 동백, 곰솔 군락지

제승당 선착장에 내려 5분 남짓 걸어가다 오른편 길로 접어들면 덮을개이고 본격적인 산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얼마 못 가 만나는 동백터널은 봄이면 남도 특유의 풍경과 마주하는 반가움을 안겨 줄 듯. 완만히 이어진 길을 따라 오른편 한산 앞바다를 간간이 바라보는 동안 길은 곰솔 군락지에 접어든다. 하늘을 가릴 만큼 훌쩍 자란 솔숲과 이어지는 편백의 조합에 폐부 깊숙이 솔향과 편백향이 가득 차 상쾌함을 선사할 것이다.

주요 지점 02
푸근한 솔숲에서의 휴식, 대촌삼거리

제승당 출발 2.3km 지점, 망산 정상까지 2.4km를 앞두고 소고포와 망산으로 길이 나뉘는 대촌삼거리에 이른다. 원래 바다백리길이 섬 사람들이 무시로 오가던 길을 탐방로로 조성한 것이라는 내력이 맞는 듯 섬 곳곳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자주 만나게 된다. 솔잎이 떨어져 길은 쿠션을 깐 듯 푹신하고 시원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 잠시 목을 축이거나 쉬었다 가기 좋은 포인트.



주요 지점 03
다도해를 눈과 마음에 품으러, 망산교와 망산

한산도의 최고봉 망산望山(293m)이 저만치 보이는 지점에서 탐방객들은 아치형 다리 망산교를 건너게 된다. 섬 이편과 저편을 잇는 도로를 내며 절개지가 생겨 이를 연결한 것. 제법 높은 다리 한 가운데서 아찔한 풍경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다리를 건너 가파른 길을 잠시 오르면 망산 정상에 이른다. 한려수도의 여러 섬에는 유독 '망산' 이라는 이름의 섬봉이 많다. 섬 가장 높은 곳에서 외적이 오는 지 망을 봤다는 의미이다. 이곳도 마찬가지. 한산만에 통제영을 두었지만 더 멀리 조망하기 위해 망산에서 군사들이 번을 섰다고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사방의 풍경이 일품이다. 마침 찾은 날은 바람이 거세고 구름이 변화무쌍한 날씨였는데, 오히려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다. 저 발치로 한산도와 이어진 추봉도가 보이고 좌우로 다도해의 섬들이 너울지며 바다를 흐르는 듯하다. 한참을 넋 놓고 봐도 좋을 풍경.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외적의 동태를 이곳에서 해안에 자리한 통제영까지 어떻게 알렸을까? 산길을 내달려서? 아님 봉화나 봉수로?











● 주요 지점 04

소담스러운 바닷가 마을로, 진두

모든 탐방이 끝나고 저만치 추봉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면 길은 바닷가 마을 등허리를 파고들어 안착한다. 제승당 선착장과 반대편에 자리한 진두마을. 제승당만 보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에게야 생소한 지명일지 모르지만 명색이 한산면 사무소 소재지이다. 해안선을 따라 어깨를 나란히 하듯 세워진 건물들과 바다, 그리고 추봉도의 푸른 그림자와 간간이 지나는 사람들의 풍경이 한 폭에 담기는 마을이다. 이곳도 충무공과 관련이 있다. '진두'라는 이름이 '진을 친 거점'이었단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information

✚ **교통편**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 만큼 배편이 자주 있어 편하다.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07:00~18:00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는데, 계절에 따라 마지막 출항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니 미리 확인할 것. 한산도에서 되돌아올 때 마지막 출항시간은 17:30분이며, 요금은 편도 4,800원이다.

✚ **배편예약** 통영여객터미널(055-645-3717)에서는 따로예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한국해운조합이 전국 도서지역까지의 배편 예약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예매는 물론 항로와 시간,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www.seomticket.co.kr

✚ **숙박** 한산도에는 문어포마을 1곳, 하소리(진두마을) 쪽에 2곳 등 펜션이 있고 진두, 추봉도마을을 중심으로 민박도 이용할 수 있다.

● 주변 볼거리

충무공의 본영임을 알리는 제승당

한산도를 유명하게 한 바로 그곳, 제승당이 선착장과 지척이니 탐방 전후 꼭 들러볼 것. 한산대첩 후 제승당을 짓고 1593년부터 1597년까지 삼도수군의 본영을 삼았던 역사의 현장이다. 승리를 만들어 낸다는 뜻을 품은, 일종의전략본부 역할을 했던 제승당과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영당, '한산도가'를 읊었다고 알려 진 수루 등이 과거 여러 차례의 보수와 중건을 거쳐 지금에 이른다. 충무공의 흔적이 가장 집약된 곳이자, 한산만의 절묘한 지형을 이용한 지혜도 엿볼 수 있다.

✚문의 제승당관리사무소 055-650-3600



산호빛의 섬 미인의 품속으로 걷고 걸어

비진도 산호길

섬에 미인이 많았다고 해서 미인도라 부르기도 했고, 충무공이 해전에서 승리한 보배로운 곳이라 비진도라 이른단다. 미인도 좋고 가슴 뿌듯한 역사도 좋지만 정작 섬에서 배를 내려 그 섬의 속내가 궁금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4.8km의 섬 둘레길이 아쉬우리만치 비진도, 그 섬의 매력에 푹 빠진다. 섬의 주봉인 선유봉(312m)을 에두르는 듯, 바다와 한 시도 떨어지기 싫다는 듯, 길은 내내 바다와 섬의 푸른 풍경 사이를 가로지르더니 불쑥 선유봉을 넘나드는 짙은 숲으로 발길을 이끈다. 그 사이 원시림의 풍경을 짐작케 할 만큼 신비롭기만 한 동백숲을 지나고, 두 눈이 아찔한 해안 절벽을 따라 가더니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군락, 다시 동백군락지를 넘어 후박나무와 때죽나무 사이로 가파른 길을 오르는 등 섬의 갖은 식생이 선사하는 자태에 눈의 호사를 한껏 즐기게 된다. 바다 백리길 6형제 섬의 길들 가운데서도 으뜸이라 해도 좋을 비경이 쉴 틈도 주지 않고 마음과 눈을 뒤흔들어 놓는다.



비진도 최고의 전망이 이제 선유봉을 지나며 펼쳐진다. 선유봉, 그 아래 미인 전망대에 올라 선유봉의 발치와 섬, 그리고 바다를 내려 보면 바다 한 가운데 모세의 기적이라도 난 듯 모래톱이 긴 길을 내고 그 좌우에 두 개의 섬이 마치 아령처럼 아슬아슬 연결된 절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일부러 길을 냈다 해도 믿을 절묘한 두 섬의 조형미도 그만이거니와, 두 섬을 연결하는 모래톱길 주변으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푸른빛깔 마블링을 이루는 바다는 숫제 이국적이기까지 하다. 감탄의 끝에 미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섬 그 자체가 미인이어서 비진도구나 하는 깨달음이 튀어 나온다. 봄이면 동백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바다는 더욱 짙푸른 빛깔을 띠다가, 가을과 겨울의 맑고 푸근한 정취로 살아가는 보물 같은 섬. 이름도 바다를 닮아 '비진도 산호길'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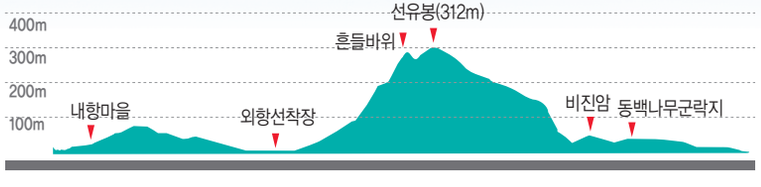






4.8km / 3시간

내항마을 ▶ 외항선착장 ▶ 미인도전망대 ▶ 선유봉 ▶ 비진암 ▶ 동백나무군락지



코스안내

비진도 산호길은 구간이 짧은 대신 가파른 길이 많아 상대적으로 탐방 시간이 긴 구간이다. 내항마을에서 외항마을로 길은 연결되어 있지만 바다 백리길은 보통 외항마을의 선유봉 돌레길을 의미한다. 4.8km의 산호길은 바삐 걸으면 2시간 30분 정도면 될 터이지만, 넉넉히 3시간 정도는 걸린다. 그러나 섬의 안팎에 숨어 있는 비경들이 튀어나오니 마음 느긋하게 먹고 천천히 걷는다면 4시간도 좋을 일이다.





● 주요 지점 01

원시 비경이 봄이면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군락지

비진도 산호길은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외항마을로 되돌아오는데, 갈래길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발걸음을 얼마 못 가 매끈하고 훌쩍 큰 야생 동백나무들이 좌우를 에워싼다. 비진도 비경 가운데 하나인 동백나무 군락지. 자생 동백이 울창한 수목이 되어 넝쿨처럼 엉키는 듯 터널을 만드는가 싶더니 머리 위로 불꽃처럼 잎과 꽃을 피워 올리는 신비로운 풍경을 만든다. 암석과 동백이 뒤엉켜 다른 세상에 온 듯하며, 빛마저 삼킨 울창한 야생미를 선사할 것이다.

● 주요 지점 02

바다를 품고 동백을 머리에 인 명당, 비진암과 수포마을

영화 촬영을 위한 세트인줄 알았다. 선착장을 떠나온 지 1km 남짓한 곳에서 만난, 돌을 차곡차곡 쌓아 단을 다지고 그 위에 올린 집들이 바다를 향해 있는 작은 마을. 길 가, 담 안의 동백나무도 탐스러운 수포마을이다. 마을을 기웃거리며 감탄하던 사이 마을 끝에서 작은 암자 비진암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시작된다. 아름드리 동백이 봄이면 돌계단에 꽃잎을 흩뿌리고, 암자 툇마루에 앉으면 한 눈에 바다가 잡힌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풍경이 달랑거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하다. 어느 속인도 이곳에서는 득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듯한 시간에 한참 발목이 잡힌다.

주요 지점 03 ●

아찔한 해안 절벽의 비경과 마주할, 노루여전망대와 용머리 바위

선유봉을 1.4km 앞두기까지 완만한 오르막을 찬찬히 오르다 저만치 막힘이 없는 하늘이 보인다 싶으면 또 하나의 절경을 기대해 봐도 좋다. 섬의 남쪽 끝으로 불쑥 튀어 나온 용머리 바위와 칼치바위로 이어지는 깎아지른 해안 절벽과 시원한 바다의 장쾌함이 펼쳐지는 슬핑이치(슬픈치). 절벽 치맛자락을 때리다 부서지는 파도는 푸근한 남해의 이미지와는 딴판으로 거칠고 드세다. 이 모든 비경을 한 번에 감상하기에는 노루여전망대가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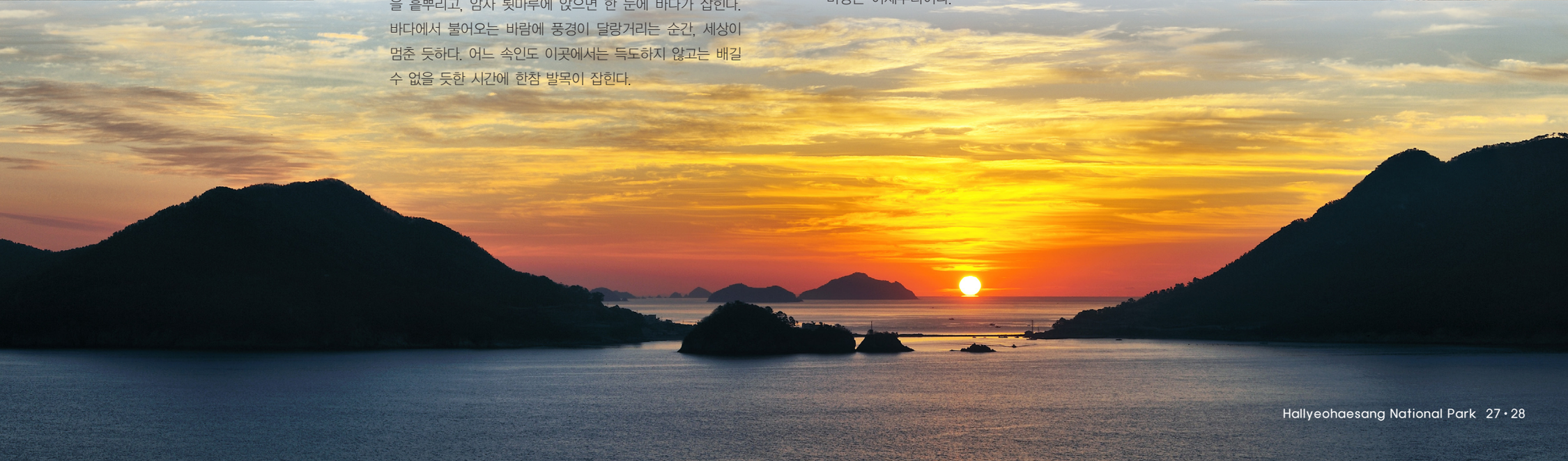


주요 지점 04 ●

비진도 정상에서 만난 또 한 번의 바다, 선유봉

망부석전망대를 지나면 이제 꾸준히 오르막이 이어진다. 후박나무와 때죽, 서어나무가 암석과 어우러진 길을 올라 드디어 선유봉(312m)에 섰다.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바닷바람이 맘 편히 한 숨 돌리게 하는 곳.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비진도 비경은 이제부터이다.







주요 지점 05●

가장 높은 곳에서 조망한 비진도의 진수, 산호사 미인도 전망대

사실 선유봉 전망대에서는 주변의 울창한 나무들이 시샘을 하는지 시야를 가려 섬과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하기 힘들다. 선유봉 하산길에 흔들바위를 지나 다시 작은 봉 하나를 오르내린 후 도착한 미인도 전망대가 숨은 실세. 모래톱길로 이어진 내섬과 외섬, 그리고 주변 바다의 진초록빛깔 바다가 이루는 비진도 풍경을 막힘없이 보게 될 것이다. 아예 관람석을 닮은 데크까지 짜여 있어 한참 쉬기에도, 아무 말 없이 이 이국적인 풍경에 빠져들기에도 좋다.



tip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볼 것

평소 등산에 익숙하고 자신 있다면 모르겠으나 걷기 길 정도로만 생각하고 왔다면 비진외항 지나 갈래길에서 시계 반대방향 길을 택할 것. 시계 방향 길이 선유봉까지 짧을 듯해도 상당히 가파르고 또 길기도 하다.

등산화는 필수!

암석 등으로 미끄러운 구간과 가파른 오르내리막 길이 제법 있어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등산화를 꼭 착용한다.

information

✚ **교통편** 비진도는 통영여객터미널에서 비진도를 경유해 매물도로 가는 배를 타면 된다. 성수기에는 배편이 늘어나지만 평소 하루 세 번 들어간다. 통영 출발 편은 07:00, 11:00, 14:10 등 출발하고, 비진도에서 통영으로 가는 배편은 09:10, 13:20, 16:40 등이다. 요금은 편도 8,250원. 통영-비진도 간은 40분 정도가 걸린다.

✚ **특산물** 비진도는 해풍으로 키운 무공해 시금치와 땅두릅이 특산물인데 주변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섬 시금치'라 불리며 인기 있다. 밭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시금치를 캐고 다듬는 모습을 쉬 볼 수 있을텐데 즉석에서 살 수 있다. 시골 인심에 '산지 직판'의 상황까지 겹쳤으니 그 푸짐한 양은 기대해도 좋다.

✚ **배편 예약** 한국해운조합이 전국 도서지역까지의 배편을 통합 예매하고 있다. 예매는 물론 항로와 시간,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www.seomticket.co.kr

✚ **숙박** 모래톱길 너머 외항마을에 콘도형 펜션과 민박 등이 있는데, 따로 식당이 있기 보다는 보통 이들 펜션이나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니 참고할 것.

도란도란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고운 길

연대도 지겟길

달아공원 근처, 달아항에서 배를 타면 어떤 섬을 들러 가도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 연대도에 바다백리길 4구간 지겟길이 있다. 총 길이 2.3km, 소요시간 1시간 30분으로 바다백리길 중 가장 짧은 구간이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오가던 길이라고 해서 '지겟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선착장에 도착해 바로 마주 보이는 마을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세 지겟길 입구가 나온다.



대숲 사이로 난 길은 과연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진 호젓한 오솔길이다. 코스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가파른 구간도 없어 혼자보다는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걷고 싶은 길이다. 하지만 이 길을 그저 소박하고 편안한 길이라고만 느낀 것은 3월에 이곳을 찾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4월부터 여름까지는 섬 곳곳이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뀌기 때문. 산에는 야생화가, 연대해변에는 알록달록 꽃밭이 펼쳐진 계절에 지겟길을 걷는다면 별천지에 온 듯 황홀해진다. 이 섬에서는 무엇을 하든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겟길의 으뜸 가는 장점으로 꼽고 싶다. 워낙 작은 섬이라 설사 산에서 길을 잘못 든다 해도 헤맬 걱정 따윈 할 필요가 없고, 마을 주민 누구와 마주치든 다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친절하다는 표현은 어쩐지 관광지 특유의 몸에 밴 예의 같고, 이곳 분들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골목에서 마주친 큰 개마저도 어찌나 순하고 정이 많은지 헤어지기 아쉬울 정도였다.







2.3km / 1시간 30분

연대도선착장 ▶ 에코아일랜드체험센터 ▶ 콩자개덩굴 자생지 ▶ 봉수대 갈림길 ▶ 옹달샘 ▶ 태양광발전소 ▶ 연대도 선착장



코스안내

연대도 지겟길은 완만하고 짧아서 걷기 길 초보자도 도전할 만하다. 그래도 산길은 산길이니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 만약 에코체험센터에서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체험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체험을 먼저 한 후 그곳에서 걷기 시작하는 쪽을 택할 것. 전기를 만드는 것은 1시간 30분을 걸은 후 하기엔 조금 벅찬 일이다. 또 한 가지, 걷기 길 코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꼭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길 권한다. 특히 사진 찍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곳 마을이 마음에 쏙 들 것이다. 에코체험센터를 포함해 연대도에 관한 모든 정보는 www.yeondaedo.com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산성교회 목사님이 혼자 관리하시다 보니 최근 소식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에코체험센터에 전화로 문의. 055-649-2263







● 주요 지점 01

이야기가 배어 있는 연대도 마을

8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은 어쩌면 지겟길 자체보다 더 매력적이다. 섬마을 특유의 정취와 현대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마을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집과 집 주인의 사연이 담긴 문패들. 골목골목다니며 '가장 오래된 밀감나무와 시원한 우물이 있는 백또성아 할머니 댁', '윷놀이 최고 고수 서재목 손재희의 집' 같은 문패들을 읽고 나면 얼굴도 보기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착장에서 바로 보이는 '연대도 카페'는 마을의 유일한 가게 겸 카페인데, 바다가 보이는 탁자에 앉아 주인 아저씨가 직접 타주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 주요 지점 02

친환경 섬이란 이런 것, 에코체험센터

연대도에는 '에코 아일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 겸비지터 센터와 경로당 '구들'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로 지어 운영 중이며, 지겟길 입구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옛 초등학교 건물에 조성된 에코체험센터는 '에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시설이다. 친환경 에너지의 원리를 배우고 사람의 힘으로 놀이기구를 움직이는 신기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숙박을 포함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에코체험센터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은 필수다.

주요 지점 03 ●

별천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다랭이꽃밭

연대봉 자락이 해안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연대도에는 평지가 거의 없다. 이런 곳에 어떻게든 농토를 만들려는 노력은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이어진 다랭이밭이 되었다. 무려 30여 층이나 되는 연대도 다랭이밭은 얼마 전부터 다랭이 꽃밭으로 변신해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에코아일랜드로 거듭나면서 관광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다랭이꽃밭 탄생의 배경이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양귀비, 수레국화, 백일홍, 분꽃 등이 피고 지는 이곳은 여전히 마을 어르신들이 밭농사를 짓는 농토이니 구경할 때는 작물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주요 지점 04

달그락달그락, 몽돌해변 걷는 소리

마을회관 뒤쪽 연대도 산성교회 옆 골목을 따라가면 넓은 우드데크가 보이는데, 이곳이 몽돌해변 입구다. 해변이 아담하고 오목하게 둘러싸여 있어 아늑하다. 동글동글하고 올망졸망한 몽돌들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돌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몽돌해변은 그 나름대로 투박한 멋과 재미가 있다. 크기와 모양은 어떻든 파도가 칠 때마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달그락달그락 돌멩이들이 내는 기분 좋은 소리도 일품이다.





tip

예약은 필수

연대도에는 여느 관광지처럼 따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고, 소일 삼아 객을 맞이하는 마을 주민이 전부다. 그러니 모든 시설과 체험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물론 길을 걷거나 마을을 둘러보는 데는 따로 예약이 필요 없다.

도시락은 현명한 선택

연대도에는 식당이 없다. 숙박을 한다면 식사를 함께 예약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리 수소문해 예약해야 한다. 당일치기 여행이라면 간단한 요기거리를 준비해 가면 된다. 단, 컵라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연대도 카페에서 해결할 수 있다.

느리게 걷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슬로우 시티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연대도는 지역 주민들이 느리게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다. 그러니 느림과 소박한 삶의 여유를 느끼고 싶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섬을 권하고 싶다.

지겟길 안내를 맡은 소발이

연대도 사이트를 다시 한 번 보다가 코스 소개에서 잠깐 언급한 '개' 소식을 발견했다. 그녀석 이름은 소발이, 주민 이학조 씨 댁 견공으로 원하는 방문객에게 약간의 수고비(사료값)를 받고 지겟길을 안내해줄 예정이란다. 순하고 정다운 성품은 경험으로 보증하니, 관심 있는 분은 마을 간사님(이추문010-8550-9304)께 문의하시길.

information

✚ **배편** 예약 달아선착장에서 오전에 두 번(08:00, 10:00), 오후에 두 번(14:10, 동절기 16:10, 하절기 16:40) 섬나들이호가 출발한다. 연대도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08:18, 10:22, 14:28, 동절기 16:32, 하절기 17:10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수시 운항하며 날씨가 안 좋으면 결항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땐 섬나들이호 선장님(017-547-7348)께 문의하면 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4,000원이며, 승용차는 1만 원이다.
*최두기 어촌계장님(010-5302-3111)께 문의하면 원하는 시간에 배편을 섭외할 수 있다. 요금은 3인 이하 3만 원이다.

✚ **숙박** 연대도에는 펜션이 두 개, 어촌계와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민박이 하나씩, 그리고 주민들 집에 묵는 민박 여러 곳이 있다. www.yeondaedo.com의 민박 메뉴에 들어가면 각각의 숙소 사진과 가격, 연락처가 자세히 나와있다.

✚ **식당** 따로 마련된 식당은 없지만 방문전 어촌계장님께 예약을 하면' 식사'를 할 수 있다. (장소 : 민박집 또는 연대도에코체험센터)

햇살과 어심漁心을 품은 섬으로의 산책

매물도 해품길

섬과 섬 사이를, 그리고 망망대해의 한복판을 얼마나 달렸을까. 넘실넘실 파도를 타고 넘는 뱃머리 앞으로 해무에 감싸인 대매물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섬의 모양새가 장군이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하여 '마미馬尾도' 라 불렸던 매물도. 경상도 발음으로 '마미' 가 '매미' 가 되었고 그렇게 와전된이름은 결국 매물도가 되어버렸단다. 대매물도의 해품길은 햇볕을 쬐고 있는 돌미역으로 가득한 당금항에서 시작해, 당금마을을 지나면서 곧바로 '본론' 으로 진입한다. 짭짤한 바닷바람에 파도처럼 출렁이는 초지가 펼쳐지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는 시퍼런 바다가 허연 포말을 일으키며 뒤척인다. 그렇게 시작된 해품길은 장군봉(210m)을 거쳐 대항마을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바짝 끼고 이어진다. 장군봉에서 섬 서쪽 끄트머리인 꼬돌개까지 이어지는 길은 소매물도와 등대섬의 장관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당금마을과 대항마을을 연결하는 고갯길은 거친 바다를 벗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발로 다져진 길이다. 1810년 처음 매물도에 자리를 잡았던 정착민들은 15년 만에 두 해에 걸친 흉년과 괴질로 모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꼬돌개라는 지명도 '고꾸라지다' 의 방언인 '꼬돌아지다' 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지만 마을길 곳곳에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있어 걷는 재미는 쏠쏠하다. 모두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5.2km / 3시간

한산초등학교 매물도분교 ▶ 파고라쉼터 ▶ 장군봉 전 안부 ▶ 장군봉 ▶ 꼬들개 ▶ 대항마을



코스안내

당금항에서 시작해 섬 둘레를 한 바퀴 도는 해품길의 총 길이는 5.2km,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이다. 조금 서둘러 걸으면 2시간 만에도 돌 수 있지만, 막상 걷다보면 발길을 붙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다. 특히 당금마을과 대항마을은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꼼꼼히 둘러보길 권한다. 여객선은 대항마을과 당금마을을 모두 들르기 때문에 당금마을에서 섬을 돌아 대항마을에 도착해 돌아가는 배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물도 정보 www.maemuldo.go.kr



● 주요 지점 01

매물도 소년의 꿈이 자라던 한산초 분교

당금마을 위쪽 언덕바지에 자리한 자그마한 학교로, 정식 명칭은 '한산초등학교 매물도 분교' 이다. 1963년부터 2005년 폐교하기까지 43년 동안 당금마을과 대항마을 아이들의 꿈을 키워냈던 곳. 교육열이 남달랐던 섬사람들이 직접 세운 학교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매년 정월 초사흘이면 마을 어른들이 모여 교문 앞에 밥상을 올리며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길 빌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발전소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해금강 전망대' 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



● 주요 지점 02

절벽 위의 으뜸 전망대, 파고라 쉼터

대매물도 최고봉인 장군봉 못지않은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다. 뒤로는 지나온 당금마을이 아련하게 드러나고, 주위에는 동백나무와 억새로 가득한 초지가 펼쳐진다. 아슬아슬한 절벽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흑염소들과 만날 수도 있다.



● 주요 지점 03

장군의 전설이 서려 있는 장군봉

매물도란 이름에 얽혀 있는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군' 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다. 장군이 다시 말에 올라타는 날 매물도가 크게 흥한다는 전설이다. 하지만 멀리 마라도까지 내다보이는 이 절경을 뒤로 하고 장군이 다시 말에 오를는지는 의문. 장군봉 정상에는 전설 속의 장군과 말을 형상화한 조영철 작가의 '비상' 이란 작품도 눈길을 끈다.





● 주요 지점 04
고꾸라질 만큼 아름다운 풍경, 꼬돌개

꼬돌개라는 지명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꼬돌개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꼬돌아질' 만큼 아름답다. 동쪽 소매물도를 향해 조붓하게 뻗어나간 바위들이 외떨어진 섬의 정취를 더하고, 대매물도에서 소매물도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도 바로 꼬돌개이다. 대매물도에서 숙박을 한다면 이곳에서 꼭 일몰을 감상할 것!



● 주요 지점 05
대항마을의 수호신, 후박나무 당상목

대항마을 뒤쪽에 자리한 수령 300년의 후박나무이다. 장군봉과 함께 매물도를 돌보는 성물로 여겨 매년 초사흘마다 이곳에서 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 하거나 멀리 외지로 나설 때는 꼭 이곳에서 무사안녕을 빌었을 만큼 주민들에게는 영험한 나무이다.

tip

여객선의 좌석은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당일 배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여객선의 승선권은 보통 일주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통영에서 매물도까지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여객선도 70t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배멀미를 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멀미약은 필수!

집집마다 지붕에 새파란 물탱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이 귀한 곳이라는 증거다. 숙박을 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예의다.

당금항의 당금구판장, 대항항의 대항구판장이 매물도의 유일한 가게다. 물, 쌀, 라면, 과자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항구판장, 당금구판장, 민박집에서 식사(약 8,000원)가 가능하지만, 비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출발지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information

✚ **배편 예약**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07:00, 11:00, 14:00 하루 세 번 출항하는 여객선이 소매물도와 매물도(대항, 당금)를 거쳐 통영으로 돌아 간다. 대항마을(당금마을) 출항 시간은 08:30(08:40), 12:35(12:45), 16:00(16:10)이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거제 저구항에서도 배편이 있다. 저구항에서 오전 두 편(08:30, 11:00), 오후 두 편(13:30, 15:30) 출항하며, 소요시간은 30분. 주말이나 연휴, 성수기에는 증편 운항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항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선사에 출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솔해운(통영) 055-645-3717, www.nmmd.co.kr
매물도해운(거제) 055-633-0051, www.maemuldotour.com.

✚ **숙박** 당금마을과 대항마을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이 20여 곳 있다. 시설과 시기에 따라 숙박요금이 천차만별이다. 매물도 홈페이지(www.maemuldo.go.kr)에 들어가면 각 민박집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으니 참고할 것.

작기에 더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백미

소매물도 등대길

소매물도는 형님뻘 되는 대매물도보다 훨씬 작은 섬이지만 한려수도의 백미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오죽하면 진시황제의 신하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러 가던 중 섬의 아름다움에 반해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글귀를 새기었다는 전설이 전해져올까. 크라운제과의 '쿠크다스'라는 과자 CF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소매물도는 일약 한려수도의 '스타'로 떠올랐다. 10가구가 채 못 되는 이 작은 섬을 방문하는 한 해 여행객의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할 정도다. 선착장에서 시작된 등대길은 왼쪽으로 섬을 돌아 망태봉(152m)을 거쳐 등대섬으로 이어진다. 남매의 안타까운 사랑이야기가 전해져오는 남매바위를 지나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대매물도의 아련한 풍광이 나무 사이로 드러난다. 옛 소매물도 분교를 지나면 관세역사관이 있는 망태봉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즈음부터 소매물도는 주인공의 자리를 등대섬에게 내어주고 만다. 마치 섬 전체가 등대섬을 감상하기 위한 거대한 전망대인 것처럼, 소매물도 본섬에서 바라보는 등대섬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초지로 이뤄진 봉긋한 언덕이며, 그 위에 우뚝 선 새하얀 등대 그리고 그 왼쪽으로 늘어선 병풍바위는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등대섬으로 이어지는 열목개를 걷는 일은 신비로운 체험이다. 하루에 두 번 바다가 갈라지고 몽돌길이 드러나는데, 양쪽으로 파도가 들이치는 것이 여간 신기한 게 아니다. 나무데크로 잘 정비된 계단을 따라 등대에 이르면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온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가없이 펼쳐지고; 뒤로는 소매물도 본섬과 대매물도를 비롯한 한려수도의 섬들이 올망졸망 떠오른다. 열목개의 물길이 항시 열려 있다면 언제까지고 머물고 싶은 풍경이다.



3.1km / 2시간

소매물도 마을 ▶ 남매바위 ▶ 분교 ▶ 망태봉 ▶ 열목개 ▶ 등대섬





한 려 해 상 국 립 공 원

코스안내

선착장에서 시작해 소매물도 등대에 이르는 등대길의 공식적인 길이는 3.1km,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이다. 하지만 등대섬에서 왔던 길을 고스란히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2시간 정도다. 선착장에서 남매바위 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경사가 꽤 가파르고 길도 험하기 때문에 먼저 마을길로 망태봉에 올라 등대섬을 돌아본 뒤 남매바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힘을 아끼는 방법이다.

*소매물도 정보 www.maemuldo.go.kr



● 주요 지점 01

남매의 안타까운 사랑, 남매바위

남매바위에 얽힌 사랑이야기는 몇몇 버전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섬에서 태어난 남매가 어린 시절 헤어져 각기 다른 섬에서 살게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부의 연을 맺으려는 순간 벼락을 맞고 바위가 되었다는 것. 작은 섬마을에서 근친 연애에 대한 금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을까. 위쪽의 거뭇한 바위가 '오빠바위', 바닷가 쪽의 하얀 바위가 '누이동생 바위'이다.



● 주요 지점 02

소매물도 만큼 작은 학교, 옛 소매물도 분교

1969년 개교하여 1996년 폐교하기까지 13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분교로 공식명칭은 '매물도 초등학교 소매물도 분교'이다. 편백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로 둘러싸인 아담한 건물과 운동장이 소박하면서도 탐스럽다. 차태현과 송혜교 주연의 〈파랑주의보〉 등 여러 영화와 CF에 등장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어 들어가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



● 주요 지점 03

등대섬을 위한 최고의 전망대, 망태봉

해발 152m에 불과한 봉우리지만 소매물도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등대섬을 바라보기엔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망태봉에는 1970~1980년대 남해안 일대의 밀수를 감시하던 감시초소도 남아 있다. 현재는 '관세역사관'으로 탈바꿈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역사관의 개방시간은 08:30~15:30이며, 월요일과 목요일은 휴관한다.





● 주요 지점 04

등대섬으로의 신비로운 초대, 열목개

소매물도 본섬과 등대섬을 잇는 약 70m의 몽돌길이다. 물이 들고남에 따라 길이 열리고 닫히는 풍경은 아무리 자연현상이라고 해도 신비롭기만 하다. 이끼가 가득 낀 커다란 몽돌과 양 옆으로 들이치는 파도는 걷는 재미를 더한다.

●주요 지점 05

명실상부 소매물도의 주인공, 등대

소매물도에서도 등대섬, 등대섬 중에서도 주인공을 꼽으라면 16m의 높이로 우뚝 솟은 새하얀 등대가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세워진 소매물도 등대는 초지, 병풍바위 등 등대섬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지며 섬의 낭만에 방점을 찍는다.





tip

소매물도도 마찬가지지만 바닷바람이 강해 한여름에도 방풍 재킷을 챙기는 것이 좋다.

등대섬을 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매물도까지 왔는데 등대섬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등대섬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매물도 홈페이지(www.maemuldo.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계절내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 식당, 매점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등대식당, 토박이음식점 등에서 굴해장국, 굴미역국, 멍게비빔밥, 회덮밥, 생선구이 정식 등을 쿠크다스식당, 다솔멘션에서 9,000~1만 원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종종 반찬으로 나오는 방풍나물도 꼭 맛볼 것. 등대섬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약간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풀내음이 입맛을 돋운다. 선착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잡아 손질해주는 해산물도 별미다.

information

✚ **교통편**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07:00, 11:00, 14:00 하루 세 번 출항하는 여객선이 소매물도와 매물도를 돌아 통영으로 돌아간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거제 저구항에서도 배편이 있다. 저구항에서 오전 두 편(08:30, 11:00), 오후 두편(13:30, 15:30) 출항하며, 소요시간은 30분. 주말이나 연휴, 성수기에는 증편 운항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항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하기 전 선사에 출항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솔해운(통영) 055-645-3717
매물도해운(거제) 055-633-0051

✚ **숙박** 다양한 펜션과 민박이 있어 숙박시설은 잘 갖춰져 있다. 매물도 홈페이지(www.maemuldo.go.kr)에 들어가면 각 숙박시설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다.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탐방추천코스

2개 섬 추천 탐방 1일, 거제 기준

구간	시간	소요시간	주요내용	비고
매물도 해품길	08:30~09:20	50분	이동(매물도→소매물도)	당금마을, 대항마을
	09:20~14:00	4시간 10분	매물도 해품길 탐방	구판장 식사 가능
소매물도 등대길	14:00~14:10	10분	이동(매물도→소매물도)	등대섬 건너는 물때시간 확인 필수
	14:10~16:10	3시간	소매물도 등대길 탐방	
	16:10~17:00	1시간	이동(소매물도→통영)	

전 코스 탐방 4박 5일, 통영 기준

	구간	시간	소요시간	주요내용	비고
1일	연대도 지겟길	10:00~10:30	30분	이동(달아선착장→연대도)	달아선착장 08:00, 10:00, 14:10, 16:10
		10:30~14:00	2시간 30분	연대도 탐방	
		14:10~14:40	30분	이동(연대도→달아선착장)	
		14:40~14:00	20분	이동(달아선착장→달아공원입구)	달아선착장~달아공원입구
	미륵도 달아길 (희망봉)	14:00~17:00	3시간	미륵도 달아길, 희망봉 구간 탐방	달아공원~산양읍사무소
		17:00~18:00	60분	시내버스 탑승 및 달아공원 이동	산양읍사무소~달아공원 버스 이동시간 15분내외
		18:00~17:00	1시간	달아공원 일몰 탐방	
		17:00~		일몰 감상 후 택시 등을 이용하여 숙박장소 이동	숙박장소 서호동여객선 터미널 인근 추천
2일	한산도 역사길	09:00~09:30	30분	이동(→한산도)	매 정각 마다 배가 있음
		09:30~16:30	7시간	제승당 탐방, 전혁림 벽화 거리 탐방(통예인 거리), 한산도 역사길(12km), 자전거 무료 체험	
		16:30~17:30	1시간	진두마을에서 버스로 문어포마을 이동	진두마을 ⋯› 문어포마을 이동
		17:30~		문어포마을 숙박	
3일	비진도 산호길	07:10~07:40	30분	비진도 행 배 이동	문어포마을 ⋯› 비진도07:10, 여객선사 시간확인 필수
		07:40~11:20	4시간	비진도 탐방	
		11:20~12:20	60분	이동(비진도→매물도)	
	매물도 해품길	12:20~18:00		매물도 해품길 탐방	당금마을, 대항마을구판장 식사 가능
		18:00~		일몰 감상 및 숙박	
4일	소매물도 등대길	09:00~09:10	10분	이동(매물도→소매물도)	등대섬 건너는 물때시간 확인 필수
		09:10~12:20	3시간 10분	소매물도 등대길 탐방	
		12:20~14:50	2시간 30분	이동(소매물도→통영)	
	통영탐방	14:50~		동피랑 언덕, 전혁림 미술관 등 탐방	
5일	미륵도달아길 (미륵산)	09:00~13:00	4시간	미래사~미륵산 정상~야소마을	시작점까지 택시 이용 유리

배멀미도 막지 못하는 통영 최강맛집 6



1 "할매, 김밥 좀 더 주이소!" 충무김밥



아쉽게도 충무김밥은 이 지역 토박이 음식이 아니다. 그 생긴 연원을 들어보면 충무김밥 '창시자' 이두이 할머니는 해방이 되던 1945년부터 충무 부두에 닿는 배에 올라 김밥 행상을 했다. 그는 여름마다 속에 든 고명 때문에 김밥이 쉬어빠져 장사를 망치게 되자 마침내 김밥과 반찬을 따로 만들어 팔게 되었고 뜻밖에도 좀 별난 그 김밥을 시장한 김에 맛나게 먹은 뱃손들이 통영에 올 적마다 다시 찾게 되어 마침내 나라 안에 충무김밥의 이름을 떨치게 했다. 충무김밥의 창시자 이두이 할머니의 당시 손맛은 중앙시장 근처 문화마당 앞에 자리 잡은 '뚱보할매김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2 맛있다! 심심풀이 꿀빵 통영 꿀빵



꿀빵이란 통영에서 탄생한 도넛의 일종이다. 팥을 가득 넣고 튀긴 빵에 물엿을 살짝 입혀 참깨나 견과류를 뿌려 달콤하면서도 고소하다. 통영에서 꿀빵을 처음으로 팔기 시작한 곳은 '오미사 꿀빵' 이다. 1960년대 초 아무런 상호도 없이 집 앞 가판에서 배급받은 밀가루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가판 옆 세탁소 이름 '오미사' 를 빌려와 '오미사 꿀빵' 으로 불렸다.

수작업을 고집하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수량에 한계가 있어 주말이나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오후 3~4시만 되어도 모두 매진된다. 독특한 맛은 아니지만 통영의 기후에도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두고 먹을 수 있어 뱃사람들의 간식거리로 사랑받아왔다.

3 오상한 메뉴 전문 식당 통영 우짜 · 죽



'빼떼기' 는 고구마를 얇게 썰어 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경상도 지역에서 부른 말이다. 과거 경상도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는데 양식이 부족한 겨울에 이 빼떼기를 넣어 죽으로 끓여 먹었다.

일반음식과 달리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주 재료는 빼떼기, 팥, 좁쌀, 강낭콩 등이며 특히 빼떼기의 원재료인 고구마는 당도가 높은 통영 육지도산 것만 쓴다.

이 집에서는 빼떼기 죽 말고도 '우짜' 도 판다. 우짜는 우동과 짜장을 합친 말. 옛날 장에서 우동과 짜장면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메뉴였는데 그것이 지금 통영 명물이 됐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요상한(?) 맛이니 직접 시식해 보시길.

4 입속에서 열리는 화려한 멍게 축제 멍게가



통영 토박이 김미라 사장이 운영하는 멍게 수협 추천 멍게요리 전문점이다. 싱싱한 멍게와 젓국, 홍합 엑기스와 유년시절 추억을 함께 넣고 비빈 '멍게비빔밥' 이 이 집의 대표 메뉴다. 이 외에도 멍게된장찌개, 멍게물회, 멍게까스, 멍게스페셜 등 멍게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죄다 이 집 메뉴판에 써있다. 이 중 주인의 상상력이 정점에 달해 나온 게 '멍게 샐러드' 다. 양념한 멍게와 새싹, 김, 무순, 해초, 거기에 달콤한 소스가 곁들여지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맛의 향연이 입 안에 펼쳐지며 멍게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뀐다.

멍게 요리 외에도 상에는 12개의 밑반찬이 가득 차려져 배가 가득 찰 때까지 젓가락 든 손이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다.

5 시원하고 단 맛의 지리·탕 홍도복어



윤이상기념과, 서호시장, 동피랑길, 남망산 조각공원 등을 둘러봤더니 허기가 진다. 식당이 밀집해 있는 미수동 근처에서 요기를 하고자 해저터널을 빠져오니 바로 앞에 '홍도복어' 집이 길을 막는다.

홍도복어는 이름 그대로 복요리 전문점. 복국과 멍게 비빔밥 세트가 인기다. 새콤달콤한 복 껍질 무침과 생선회를 먼저 내어준 뒤 멍게와 깨소금, 김 가루를 넣고 비벼 먹는 멍게 비빔밥과 복어와 콩나물을 넣고 시원하게 끓인 복탕을 차례로 내어 놓는다. 시원하고 단 맛의 탕과 유들유들한 복어의 살점이 이 집의 특징이다. 쉬는 날이 부정기적이라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6 통영 토박이만 아는 '다찌'집 다찌집



'다찌' 가 정확히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곳 사람들도 확실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다 있다' 의 줄임말 이라고도 하는데 유력한 것은 일본의 '다찌바(立場, 서서 먹는 곳)' 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뱃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잠깐 들러 술 한 잔 마시던 선술집인 셈인데 안주는 주인 맘대로다. 항구의 식당에서 나오는 안주라고 해봤자 어차피 해산물 이었을 테니 차라리 술값에 투자하는 편이 나았을 것. 전통 다찌집은 술이 불어나는 데 따라 1차, 2차, 3차 안주가 나오는 식이지만 지금은 기본 한 상 개념이다.

보통 4인 기준 10만원에 술이 10병 딸려 나온다. 추가 술은 맥주 1병 6000원, 소주 1병 만 원 정도다. 다소 비싼 편이지만 진기한 안주가 줄줄이 딸려 나오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통영, 놓치면 안될 14가지

구국과 절개의 현장을 따라걷다 ▶▶

"구국의 땅 통영은 한산대첩을 치른 역사적 현장이며 통제영 300년의 유서 깊은 도시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통영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부이자 왜적의 동선을 감시한
자연망루서 통영의 가치와 의미를 뱃속 깊이 깨닫게 한다."















1 '강구안(문화마당)과 거북선'

중앙동과 항남동 등의 해안 일부를 '강구안' 이라고 불렀는데, 개울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란 뜻이다. 통제영 당시 판옥선과 거북선 등의 전선(戰船)이 정박하던 병선마당이다. 지금은 통영민들의 문화마당으로 쓰인다.

2 나라가 세운 충무공 사당 '충렬사'

1906년 제7대 이운룡 통제사 때 충무공 이순신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세운 사당이다. 1663년 현종임금이 현판을 사액했고, 구한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이충무공을 모신 사당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속했다.

3 통영의 유래 '통영세병관'

'통영' 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곳으로서 충청, 전라, 경상 삼도수군통제영이 의전과 연회를 행했던 상징적 건물이다. 조선시대의 단일 면적 목조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며, 유일하게 처음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4 근대문화유산 '해저터널'

1932년 완공된 동양최초의 해저터널로서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동양 최초의 해저 구조물이다. 비록 공사의 주창과 시행이 일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투입된 인력과 자재가 우리 민족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5 민초들이 세운 이순신 사당 '착량묘'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듬해인 선조 31년(1598년), 향토민들과 수군들이 세운 최초의 이순신 사당이다. 한산대첩 때 왜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던 곳이라 귀신의 출몰이 잦았다고 하는데 착량묘를 세운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6 통영관광 1번지 '케이블카'와 '한려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미륵산은 통영의 모습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생전망대다. 왜적을 감시한 망루로서 통영의 입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케이블카는 왕복요금 9000원이다.

7 통영의 역사를 한눈에 읽는 '향토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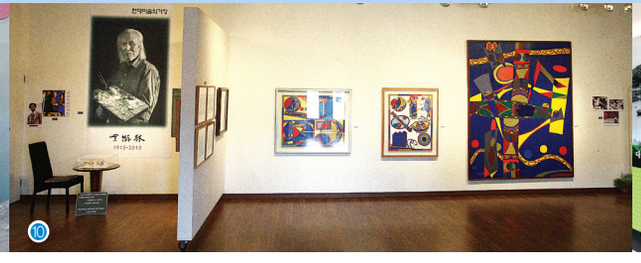
통영을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통영의 지역사와 관련된 1천 5백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선사시대, 청동기, 임진왜란, 삼도수군통제영, 통제영12공방, 일제강점기, 통영의 민속, 무형문화재 등 각종 향토자료들이 시대별 11개의 전시실로 나뉘어져 있다.

통영, 놓치면 안될 14가지

예향(藝鄕) 통영을 만나는 여정 ▶▶

"통영은 자타공인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다. 시인 유치환과 김춘수, 김상옥,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와 김용익, 화가 이중섭과 김용주, 전혁림 등 대한민국 대표 예술인들이 유년의 시간과 예술혼을 불태웠던 땅이다.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는 벌써 가슴 벅찬 감동과 잃었던 열정이 충전된다."













8 동쪽의 아름다운 벼랑 '동피랑 벽화마을'

'동쪽에 있는 높은 벼랑' 이라는 토박이말로, 재개발단계에 들어갈 위협에 처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동피랑 색칠하기 전국벽화공모전' 을 열었고 각지에서 참여해 동피랑에게 꿈의 날개를 달았다.

9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음악이었다 '윤이상 기념공원'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생가 주변에 기념관과 윤이상 베를린 하우스, 분수시설, 벤치 등을 조성한 공원이다. 통영 바다의 푸른 물색, 파도소리, 초목의 잔영까지 그에게는 자연의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렸다고 한다.

10 통영의 모든 색채 '전혁림 미술관'

'색채의 마술사' 라는 찬사를 받았던 화가 전혁림의 개인 미술관이다. 2010년 96세의 나이로 작고하기까지 고향 통영을 지키며 예술가로서 실천적 삶을 살았다.

11 '꽃'의 시인 기리는 '김춘수 유품전시관'

2008년 개관한 전시관으로, 시인의 자필 원고 126점과 사진을 비롯해 생전에 사용했던 가구류와 생활소품 등의 유품이 전시돼 있다. 1층에는 산고의 고통마저 느껴지는 원고를 전시했고, 2층에는 살아생전 시인이 기거하던 방을 재현했다. 관람은 무료다.

12 중앙동 우체국과 '청마거리'

청마 유치환 시인이 즐겨 다니던 골목이라 청마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현재 중앙동 우체국은 청마가 이용도 여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편지를 부쳤던 곳으로, 주변에 청마의 대표작 '행복' 과 '향수' 시비 및 흉상이 서 있다.

13 한국소설의 대모(大母), 이곳에 잠들다 '박경리 기념관'

한국현대문학사의 획을 그은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를 기념한 문학관이다. 고향 통영을 배경으로 한 소설 〈김약국의 딸들〉도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일생이 담긴 연표와 사진을 만날 수 있다.

14 미륵도와 통영 잇는 '통영대교'

미륵도와 통영시내를 잇는 다리로, 도남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미륵도 내 택지개발로 주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충무교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어졌다. 관광특구 미륵도의 위상에 걸맞게 아치부분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경이 멋있다.